



건전한 추석명절 문화 정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수도권본부 직원 여러분께!

풍요로운 황금 들판이 마음까지 넉넉하게 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이야기와 푸근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덕분에 우리 본부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석 명절을 맞아 청렴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단은 부패행위와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사적으로 반부패·청렴실천 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명절에도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추석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직무관련자와 사적 만남 금지, 집주소 및 집 전화번호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을 일체 받지 않는 등 부조리와 부패를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될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다시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공직자의 기본덕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시고, ‘건전하고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온가족이 함께 따뜻한 웃음과 담소를 나누는 정겨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7.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이 현 정